

미국, 한국 등 33개 OECD 국가별 약가 수준 비교

- 미국 vs 한국의 약가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염지원 과장

1. 들어가며

- 이 자료는 미국의 연구기관인 RAND Corporation이 정책적 활용을 위해 미국 보건부 지원을 받아 미국과 OECD 국가간 약가를 비교해 2021년 1월 비상업적 목적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원문 : International Prescription Drug Price Comparisons, RAND, 2021.1)
 - 원 보고서에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을 비롯해 33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된 약가 및 물량 출처는 2018년 기준 IQVIA MIDAS 데이터임(2019년 10월에 데이터 접근).
 - 원 보고서에는 미국 약가를 기준으로 32개 OECD 국가별 약가가 비교되어 설명되었으며, 이 요약 보고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약가가 미국의 어느 수준인 지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음.
즉, 원 보고서에는 미국의 전문의약품 약가는 한국에 비해 305% 높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 약가의 32.8%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임.
 - 원 보고서에는 또한, 의약품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IQVIA가 분류하고 있는 구분을 따른 것임. 영문으로 된 각 세부 의약품을 이 요약보고서에서는 한글로는 브랜드의약품 (brand-name originator drug), 브랜드제네릭(brand-name non-originator)*, 제네릭의약품 (unbranded non-originator)으로 번역함.
- * 브랜드제네릭은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판매되는 제네릭을 말하며, 미국 허가 프로세스 상의 505(b)(2)로 허가된 의약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개량신약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

2. 국가별 전문의약품 매출 및 물량, 2018년 기준

(1) 33개 OECD 국가별 전문의약품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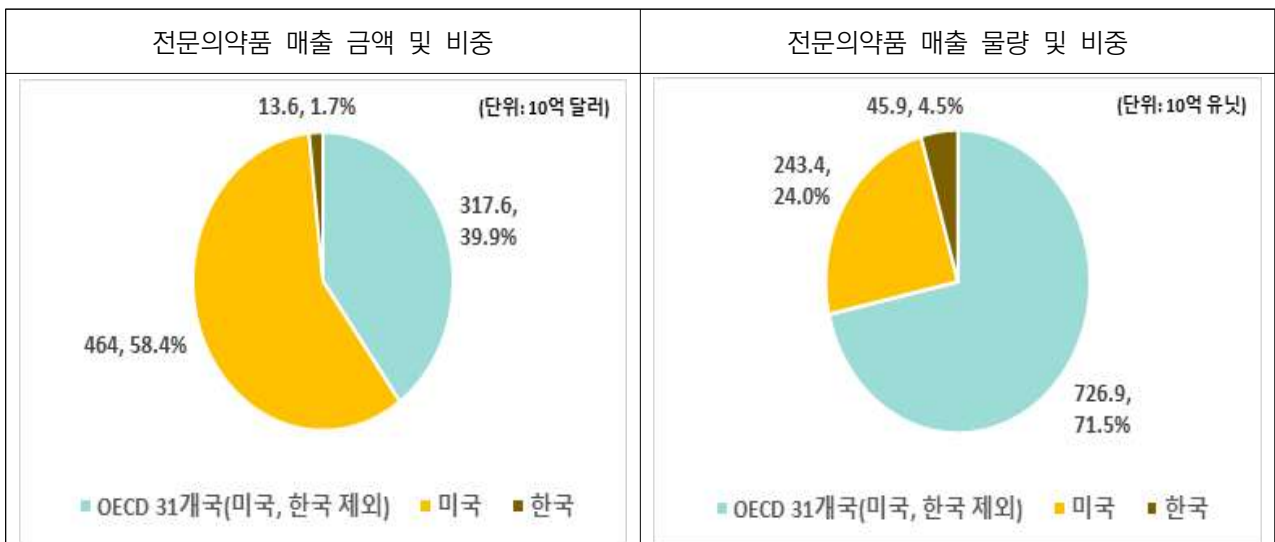
- (미국) '18년 기준 33개 OECD 국가의 전문의약품 매출액은 7,952억 달러이며, 이중 미국이 4,640억 달러로 전체의 5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 순위) 2위는 73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일본(점유율 9.2%), 3위는 399억 달러를 기록한 독일(5.0%), 4위는 프랑스, 5위는 이탈리아, 6위는 영국 순임.
- (한국) 한국은 OECD 33개국 중 9위로 '18년 기준 13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1.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2) 33개 OECD 국가별 전문의약품 매출 물량(불륨)

- (미국) '18년 기준 33개 OECD 국가의 전문의약품 매출 물량은 1조 162억 유닛이며, 이중 미국이 2,434억 유닛으로 전체 물량의 24.0%의 비중을 차지함.
- (국가별 순위) 2위는 2,137억 유닛을 기록한 일본(점유율 21.0%), 3위는 639억 유닛을 기록한 터키*(6.3%), 4위는 영국, 5위는 독일, 6위는 프랑스 순임
- *터키의 '18년 기준 전문의약품 매출액은 66억 달러로 33개 OECD 국가 매출의 0.8% 차지
- (한국) 한국은 459억 유닛의 물량을 기록해 4.5%의 비중 차지. 순위는 프랑스에 이은 7위

〈표. 33개 OECD 국가별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 2018년〉

국가명	매출액(10억 달러)	불륨(10억 유닛)	OECD 33개국에서 매출 비중(%)	OECD 33개국에서 불륨 비중(%)
OECD 33개국	795.2	1,016.2	100.0	100.0
OECD 32개국 (미국 제외)	331.2	772.7	41.6	76.0
미국	464.0	243.4	58.4	24.0
일본	73.2	213.7	9.2	21.0
독일	39.9	58.4	5.0	5.7
프랑스	31.3	50.0	3.9	4.9
영국	23.7	60.5	3.0	5.9
한국	13.6	45.9	1.7	4.5



3. 국가별 전문의약품 분류별 매출 금액 및 물량 비중, 2018년 기준

(1) 33개 OECD 국가별 전문의약품 분류별 매출 금액 비중

- (미국) 미국의 경우 브랜드의약품 매출 비중이 82%로, 브랜드제네릭 6%과 제네릭의약품 1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
- (한국) 한국의 경우에는 브랜드의약품 매출 비중이 51%로 33개 OECD 평균 78%에 비해 낮고, 브랜드제네릭의 비중은 43%로 33개 OECD 평균 9%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미국을 제외한 32개국의 브랜드의약품 및 브랜드제네릭 매출액 비중이 각각 73%와 13%인 것에 비해서도 차이를 보임.

(2) 33개 OECD 국가별 전문의약품 분류별 매출 물량 비중

- (미국) 미국의 전문의약품 매출 물량 비중을 보면, 브랜드의약품은 11%로 33개 OECD 국가 평균 27%에 비해서 낮은 반면, 제네릭의약품은 84%의 비중을 보여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한국) 한국의 경우에는 브랜드제네릭 매출 물량 비중이 66%로 33개 OECD 평균 26%에 비해서 높은 반면, 제네릭의약품은 7%로 33개 OECD 평균 47%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임.
 - 미국을 제외한 32개국의 브랜드제네릭 및 제네릭의약품 매출 물량 비중이 각각 32%와 35%인 것에 비해서도 차이를 보임.

〈표. 국가별 의약품 분류별 매출 및 물량 비중(%), 2018년〉

매출/물량 비중 국가명	매출액 비중(%)			물량 비중(%)		
	브랜드 의약품	브랜드 제네릭	제네릭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브랜드 제네릭	제네릭 의약품
OECD 33개국	78	9	12	27	26	47
OECD 32개국 (미국 제외)	73	13	14	33	32	35
미국	82	6	12	11	5	84
일본	79	9	13	36	30	34
독일	75	9	16	19	18	63
프랑스	70	9	21	32	19	48
영국	71	9	20	26	12	62
한국	51	43	5	27	66	7

4. 국가별 전문의약품 약가 수준 비교

(1) 각 국가별 약가 대비 미국의 약가 수준

- 미국은 OECD 32개국에 비해 전문의약품 약가가 256% 높음(즉, 2.56배 높음)
 - 브랜드의약품의 경우 344% 높고, 미국 매출 상위 60품목은 395%, 바이오의약품은 295% 높음
 -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의 경우에는 OECD 32개국 약가의 84% 수준임. 즉, OECD 32개국의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 약가가 미국에 비해 1.19배 높게 형성됨.
- 미국은 한국에 비해 전문의약품 약가가 305% 높음(즉, 3.05배 높음)
 - 브랜드의약품의 경우 533% 높고, 미국 매출 상위 60품목은 579%, 바이오의약품은 453% 높음
 -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의 경우에는 한국 약가의 32% 수준으로 저렴하며, 비브랜드의약품의 경우에는 한국의 57% 수준의 약가를 형성하고 있음.

〈표. 국가별 약가 대비 미국의 약가 수준 비교(%), 2018년〉

국가명	메인결과	브랜드 의약품	미국 매출 상위60품목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제외)*	非브랜드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非바이오 의약품
미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OECD 32개국 (미국 제외)	255.83	343.61	394.85	84.35	121.00	295.36	233.53
일본	209.25	307.41	363.35	43.14	72.25	303.97	160.49
독일	225.05	279.75	324.58	61.66	94.80	245.35	210.62
프랑스	257.75	348.70	425.43	57.75	90.61	316.27	220.92
영국	255.43	349.36	414.31	68.22	101.77	324.60	219.53
한국	305.43	532.83	578.65	31.92	57.20	453.20	238.93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는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한 케미컬 제네릭의약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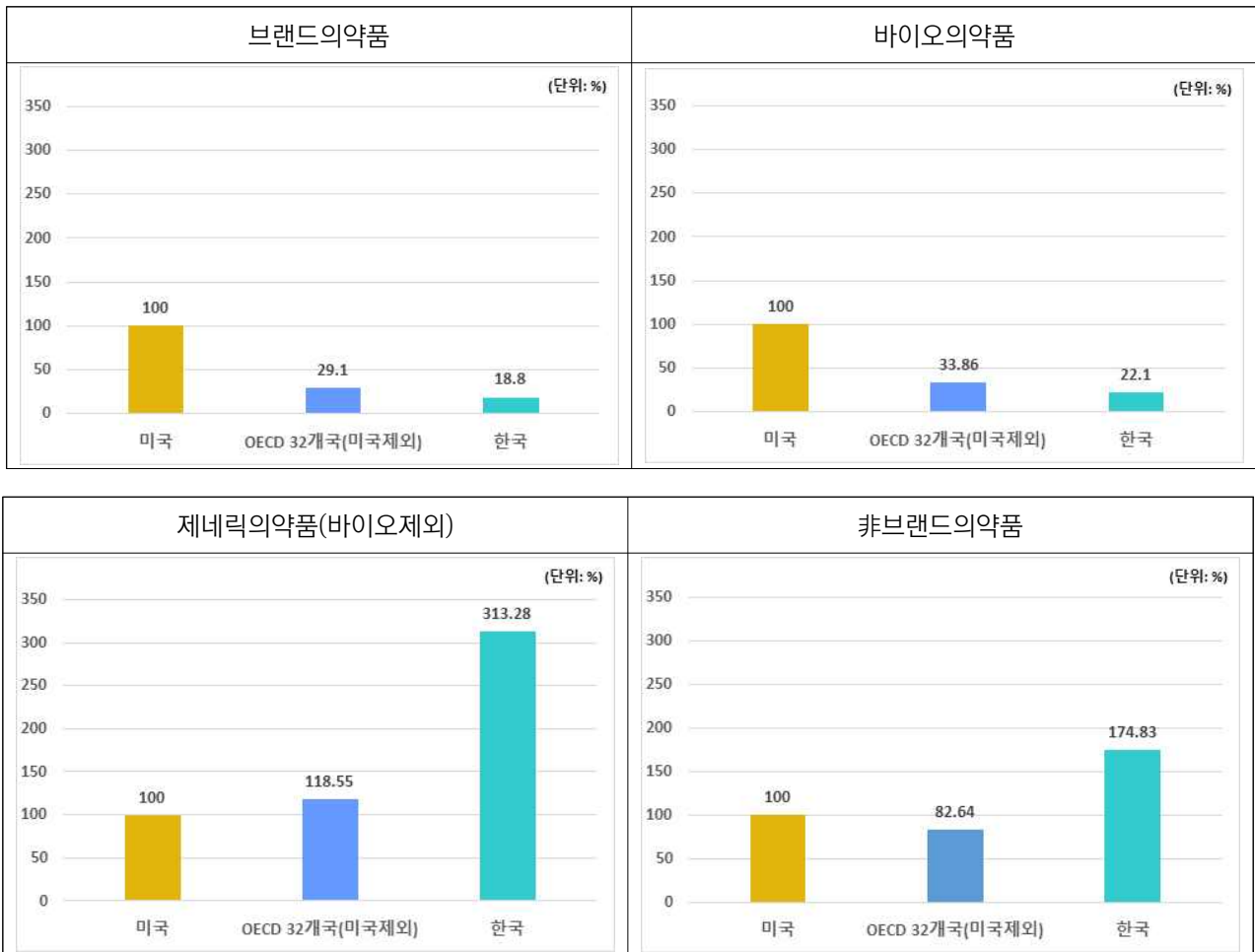
**비브랜드의약품은 브랜드제네릭과 제네릭의약품을 합한 것을 말함.

(2) 미국의 약가 대비 한국의 약가 수준

- 미국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약가가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 결과를 한국을 기준으로 바꿔보면, 미국은 한국에 비해 전문의약품 약가가 305% 높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 약가의 32.8% 수준의 약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100 \div 305$).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랜드의약품 등 세부의약품 구분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 한국의 약가는 미국에 비해 브랜드의약품은 18.8%, 바이오의약품 22.1%, 비바이오의약품 41.2% 수준

- 반면,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은 313.28%(3.13배), 비브랜드의약품은 174.83%(1.75배)으로 한국의 약가가 미국에 비해 높게 형성

〈그림. 미국을 기준으로 본 OECD 및 한국의 약가 수준(%), 2018년〉



5. 요약

- 미국은 전문의약품의 매출액 및 처방량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별로는 매출액면에서는 브랜드 의약품, 처방량면에서는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특히 높음.
 -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기타 OECD 국가 평균과는 다르게 브랜드제네릭에 대한 매출액과 처방량이 높은 특징을 나타냄.
- 미국은 한국 약가에 비해 브랜드의약품은 533%, 바이오의약품은 453% 높으나,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은 32%, 비브랜드의약품은 57%로 낮음.
 - 즉, 한국의 약가는 미국에 비해 브랜드의약품은 18.8%, 바이오의약품은 22.1% 수준이나, 제네릭의약품(바이오제외)은 313%, 비브랜드의약품은 175% 높은 수준임.